

뉴스 라운드업

- 미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전년비 3.7%로 예상(3.6%) 상회, 미·독 국채금리 동반 반등
- 뉴욕 3대 지수 보합권 마감, 엔비디아는 매출 가이드스 상회에도 시간외 거래서 하락
- 달러 강세 속 금 -1.4%·구리 -1.7%로 원자재 전반 약세
- 트럼프 "캐나다에 본때를 보일 때" 발언, 미·캐나다 무역갈등 격화

미 물가 상방 서프라이즈에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매파 프라이싱이 되살아났다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치(3.6%)를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도 0.2% 상승해 예상(0.1%)을 상회했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에서도 물가 관련 지표가 일제히 위로 수정됐다 — GDP 디플레이터는 6.4%(예상 6.2%), 근원 PCE는 3.6%(예상 3.4%)로 나타났다. 다만 2분기 성장률 자체는 1.5%로 변동이 없었고 소비지출 증가율은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돼, 물가 압력 속에서도 경기 자체는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 물가 서프라이즈는 미국 국채금리를 일제히 밀어올렸다. 10년물은 2.6bp 오른 4.649%, 2년물은 3.3bp 오른 4.209%로 마감했고 독일 10년물도 5.8bp 상승한 3.238%를 기록해 미국·유럽 장기금리가 동반 반등했다. 이는 전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지던 매파 프라이싱 숨고르기(금리 하락)가 하루 만에 되돌려진 것으로, 필라델피아 연은 서베이와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 서프라이즈가 결국 채권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기존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연방기금선물 시장은 9월 금리인상 확률을 47%, 12월 확률은 75%까지 반영하며 인상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고, 700억달러 규모 5년물 국채입찰도 응찰률 2.37배로 견조한 수요를 확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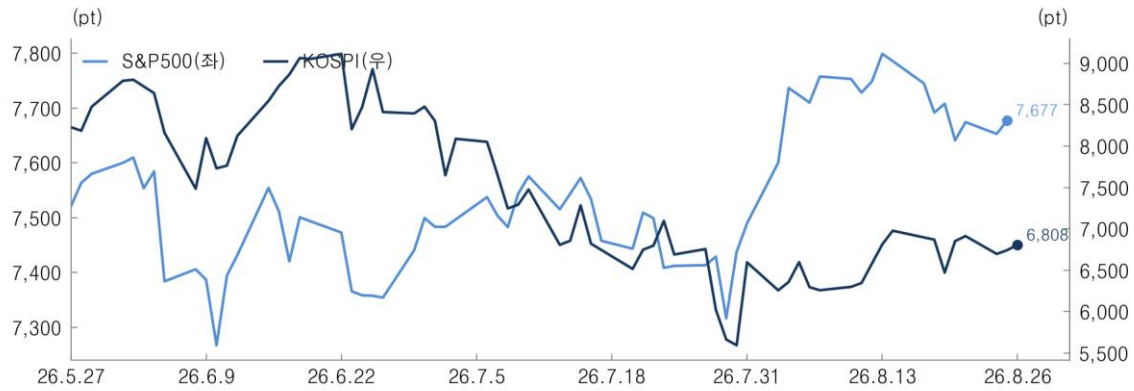
물가 서프라이즈에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다(S&P500 -0.02%, 나스닥 -0.08%, 다우 -0.25%) —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에 시선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예상을 웃도는 매출 가이드스를 제시했음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장기 지배력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완전히 견어내지 못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1.2%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0.25% 오른 99.15, 금은 1.42%, 구리는 1.71% 밀리는 등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속에 원자재 전반이 약세를 보였고, 변동성지수(VIX)는 15.22로 낮아져 시장의 경계심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 물가·금리 흐름은 어제 낮 시간대(한국시간 15~16시)에 이미 마감한 아시아 증시(코스피 +0.97%, 항셍 +0.56% 등)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늘 개장에서 그 반응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줄 때"라고 언급하며 무역갈등을 재점화했고, 멕시코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1%에서 1.5%로 상향하면서도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은 뒤로 미뤄 통화정책 선택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75.70	-0.02%	8/26 종가
	나스닥	26,130.19	-0.08%	8/26 종가
	STOXX 600	656.42	-0.01%	8/26 종가
	닛케이 225	66,261.94	+0.62%	8/26 종가
	CSI 300	4,590.79	+0.85%	8/26 종가
	KOSPI	6,808.21	+0.97%	8/26 종가
	항셍	25,652.97	+0.56%	8/26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15	+0.25%	8/26 종가
	달러/엔	159.26	-0.02%	8/27 종가
	유로/달러	1.16	-0.03%	8/27 종가
	달러/원	1,385.01	+0.20%	8/26 종가
	달러/위안	6.72	+0.03%	8/26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49%	+2.6bp	8/26 종가
	미국 2 년	4.209%	+3.3bp	8/26 종가
	일본 10 년	2.885%	-0.9bp	8/26 종가
	독일 10 년	3.238%	+5.8bp	8/26 종가
	한국 10 년	4.272%	-7.0bp	8/26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0bp	+1.0bp	8/25 종가
원자재	WTI	82.23	-0.16%	8/26 종가
	금	4,591.61	-1.42%	8/26 종가
	구리	6.60	-1.71%	8/26 종가
변동성	VIX	15.22	-1.55%	8/26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9 건 HIGH	• 호주 월간 인플레이션 예상 상회로 RBA 연말 긴축 기대 대폭 상향 — 11 월 인상 거의 확실 ↳ 로컬 은행들이 RBA 정책금리 인상폭을 연말까지 15bp 에서 23bp 로 상향 조정(보수적 추정 20bp) ↳ 11 월 정기 의사결정 회의 시점에 RBA 가 3 분기 소비자물가 지표를 확보하게 되므로 11 월 인상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 호주 달러 현물환율이 0.7186 에서 수개월 만의 고점 경신, 0.7200 돌파 시 연초 고점 0.7277 노출 가능성, AUD/NZD 교차에서 1.1900 근처 지지선 형성 •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예상 상회로 달러·미국 국채 수익률 강세, 호르무즈 지정학 긴장은 지속 ↳ 오늘 발표 예정인 미국 PCE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달러화는 보합 대비 소폭 강세 유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 ↳ 기타 주요 통화: 유로 전일 대비 소폭 약세(-0.06%), 엔화 소폭 강세(+0.06%), 파운드 약세(-0.18%) — 전반적으로 달러 우위 구도 지속 ↳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행 중이나 불안정성 여전, 금요일 연준 Warsh 연설이 추가 신호 제공 가능성 • 캐나다, 미국에 200 억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국민 지지율 76%이나 여파 심화 시 약화 우려 ↳ Carney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최근 관세에 대해 동일 금액(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미국산 약 200 억달러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금 편성 ↳ Angus Reid 여론조사에서 국민 76%가 Carney 의 무역협상 중단 결정 지지하나, 경제학자들은 최근 미국 관세가 연쇄적으로 최대 90,000 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 ↳ 광범위한 국민 지지도 무역 분쟁의 경제적 여파가 가시화되는 수개월 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Carney 의 협상 주도권도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 • 캐나다 National Bank 3 분기 이익 증가, 장기 무역분쟁 속 금융부문 회복력 입증 ↳ 캐나다 National Bank 가 자본시장과 자산관리 사업의 강력한 성과에 힘입어 3 분기 순이익 증가 기록, 경쟁사 Bank of Nova Scotia 도 이익 예상 상회 ↳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의 장기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견고성 유지 — 7 월 고용 증가가 예상 상회하고 실업률이 낮아 국내 경기 강건성 시사 ↳ 캐나다 은행권이 관세 관련 경영 리스크에 대응해 마진율이 높은 자본시장·자산관리 비즈니스 비중을 확대 • 브렌트유 3 일 연속 하락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 진정 — 지정학 긴장 완화는 별개 ↳ 브렌트유 선물이 3 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워싱턴-테헤란 간 관계 호전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시장 심리상 긴장 완화 효과 ↳ 유가 하락이 변동성이 높던 글로벌 채권시장에 안정화 기제 제공 ↳ 한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AI 생태계의 경기 건강도 평가 예정
미국	• 7 월 미국 PCE 인플레이션 3.7%로 예상 상회, 시장 9 월 금리인상 확률 35~42%로 평가

권역	요약
뉴스 69 건 HIGH	상승 ↳ 7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PCE) 3.7% 전년비(예상 3.6%, 6월 3.7%) — 예상과 달리 하락하지 않고 정체, 시장 예상 이상의 수준 ↳ 핵심 인플레이션(Core PCE) +3.6%(예상 +3.4%) 상향, 월별 PCE 상승률도 +0.2%(예상 +0.1%, 6월 -0.1%) 반등 ↳ 델러스 연준 조정 평균 PCE +2.2%(6월 +1.5%)로 가속, 광범위한 가격 상승 확산 신호 — 연준 목표(2%) 기준 65개월 연속 초과로 기조적 정착성 현실화, 금주 잭슨홀 중앙은행 심포지엄 앞두고 금리 인상/유지 논의 격화 예상 • 2분기 GDP 성장을 1.5% 확정(상향 없음), 개인소비만 +3.4%로 상향 조정 ↳ 2분기 개인소비 성장을 +3.4%로 상향(전 +3.2%) — 소비 회복 신호 ↳ 2분기 GDP 디플레이터(전체 물가지수) +6.4%(예상 +6.2%) 상향, 2분기 PCE 가격지수도 +5.3%(예상 +5.1%) 상향 조정 — 소비 회복과 동시에 물가 상승 확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 상충관계 심화 • 월스트리트 보합 마감(다우 -0.21%, S&P 500 -0.03%, 나스닥 -0.08~0.18%), 인플레이션 상향으로 성장주 관망 ↳ 인플레이션 상향으로 연준 긴축 시사,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하방 압력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 투자자 관망 심화로 전반적 거래 위축 • 엔비디아 3분기 매출 가이던스 \$108.0억(컨센서스 \$104.19억 상향)도 야간거래 주가 -1.2%, 시장 기대 미충족 ↳ Q3 매출 가이던스 \$108.0억 ±2%(컨센서스 평균 \$104.19억보다 약 \$38억 상향)도 투자자 실망으로 반영 ↳ 올해 누적 주가 +14.2%, 경쟁사 AMD·Intel 은 각각 100% 이상 상승으로 대비 약세 지속 ↳ AI 칩 시장의 장기 지배력·지속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 회의론 심화, 단순 실적 상향은 기대 이하 평가 • 트럼프, 어제 캐나다에 무역 강경 기조 재확인 — 협상 결렬 후 경고 심화·캐나다달러 약세 ↳ 트럼프 8월 26일 인터뷰에서 캐나다를 향한 강경한 무역 경고, 수일 전 미-캐 협상 결렬에 이은 후속 발언으로 분쟁 심화 ↳ 캐나다달러가 미달러 대비 1.3892(CAD/USD)까지 하락(1주일 최저치, -0.4%) — 통상 불확실성으로 수출·투자·사업신뢰 우려 부각, 미달러 강세(연준 금리 기대 상승)도 추가 압력 • 트럼프 국가긴급사태 선언, 미국 전력망 내 외국(중국) 장비 사용 금지 행정명령 ↳ 8월 26일 백악관, 중국발 기술 위협을 사유로 외국인 대형 전력설비 사용 금지 조치 ↳ 유럽위원회의 유사 결정과 연동, 글로벌 기술·인프라 영역 미-중 대립 심화 • 미국채 수익률 상승(PCE 상향), 재무부 \$70억 5년물 입찰배율 2.37배로 견조한 수요 유지 ↳ 연준 채권 매입 축소(테이퍼링) 논의 및 이란 분쟁 지정학 리스크 모니터링 속 채권 수요 안정적 평가 • 미국 인플레이션 상향 + 연준 금리인상 기대로 달러 강세, 신흥시장 자산 약세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0.1%, 지역 통화지수 -0.2% 약세로 달러 강세 영향 확산

권역	요약
	↳ 브라질 물가 월별 처음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일부 긍정, 다만 브라질 재정 우려와 멕시코 경기 둔화 관련 설문조사 부진으로 상쇄 • 민주당 상원의원 Blumenthal, 러시아 광범위 제재법안 9월 하원 통과 기대 표명(상원 이미 통과) ↳ 공화당도 강한 지지로 초당적 기조 유지, 우크라이나 Zelenskiy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연계 발언 ↳ "힘을 이해하는 것만"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 재확인
일본 뉴스 4 건 HIGH	• 미국-일본 공동 엔화 개입이 외환시장 전환점, 향후 엔화 상당한 상향 재평가 신호 ↳ 1998년 이후 최초 시도, 2011년 이후 미국 재무부 공동 개입으로는 첫 사례 ↳ Eurizon SLJ 최고경영자 겸 공동투자책임자 Stephen Jen의 평가: 공동 개입으로 엔화에 대한 기대 재편 신호, 향후 수년에 걸친 상당한 상향 재평가 가능성 부각 • 일본,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정책 공개 —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지원 ↳ 총리 지시로 어제(26일) 정부 '녹색 전환(GX) 실행위원회'에서 종합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계획 발표 ↳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지원 포함, 현재 해협을 통해 거의 모든 원유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헤징 목적 ↳ 입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는 연말까지 최종화 예정
브라질 뉴스 16 건 HIGH	• 브라질 국채 중 기준금리 연동 채권 비중 연말 49-53%로 상향, 변동금리 위험 확대 ↳ 기준 전망(46-50%)에서 상향 조정, 변동금리 채권 비중 증가로 금리 충격 노출 확대 ↳ 7월 연방채무 9.289조 레알(약 1.8조 달러)로 전월 대비 0.22% 증가 ↳ 중앙은행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진행했으나 기준금리 14% 수준, 인플레이션 4.2%로 실질금리 부담 지속 • 라틴아메리카 시장 약세, 미국 달러 강세 및 상품가격 약화 압박 ↳ 라틴아메리카 주식지수 -0.4%, 통화 -0.2% 하락 ↳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상승으로 연준 인상 기대 상승 → 달러 매수 압력 확대 • Flavio Bolsonaro 대선주자, 당선 시 국채 상한제 도입 공약 ↳ 경제팀 고문 Adolfo Sachsida가 발표한 공약으로, 지출 상한선 초과 시 자동으로 지출을 제약하는 장치를 발동해 재정 지속성 강화 • 로이터 설문 — 브라질 주식 전망 재정 우려로 하향 수정 ↳ Ibovespa 올해 +8.3%, 2026년 말까지 상승세 유지 전망이나 추가 상승 모멘텀은 둔화 • 브라질 8월 중순 물가지수(IPCA-15) 월간 -0.40%, 1년 만에 첫 마이너스 ↳ 12개월 기준 4.24%로 7월 4.52%에서 하락, 로이터 설문 예상(4.34%)도 하회
EM 기타 뉴스 8 건 HIGH	• 러시아 곡물 수출 차질 심화 — 흑해항만 터미널 복구 최대 4개월 ↳ 노보로시스크항 NKHP 터미널이 8월 12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된 후 복구에 최대 4개월 소요 예상 ↳ Demetra가 운영하는 인접 터미널도 피해, 다만 규모 경미 ↳ 지난 수개월 공격으로 흑해·아조프해 항만의 곡물 수출이 거의 중단, 러시아 전체 곡물 수출의 70%에 해당하는 통로 마비

권역	요약
	• 러시아 7월 산업생산, 예상 수준 미달로 회복 탄력 제한 ↳ 7월 산업생산 +0.4% (전년동기 대비), 6월의 -0.7%에서 반등했으나 로이터 예상(+0.7%) 미달 ↳ 원자재 채취가 -2.6%로 악화, 제조업 부진 지속 ↳ 올해 1~7월 누적 산업생산 +0.1%로 연간 목표(+0.6%)에 크게 미달 •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 강화 — NATO 식 전술에 정통한 지휘관 배치 ↳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조우(연대)·3군단 지휘관 두 명을 동부 거점 방어에 임명, NATO 식 전술 경험자 배치 ↳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강화 움직임 • 터키, 시리아 쿠르드군 해산 환영 — 지역 안정화 신호 ↳ 터키 정의개발당(AKP)이 시리아민주군(SDF) 해산을 시리아 통일 강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터키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차기 시리아 정부 재건의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 • 체코, 재정규칙 완화 최종 승인 — 정부 지출 여유 확대 ↳ 체코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며 예산 적자규칙 완화 법안 최종 통과 ↳ 포퓰리즘 정당인 바비시 총리 정부가 의회 다수당으로 법안 강행, 재정 제약 완화로 정책 추진 여지 확보 • 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권리 분배 합의 ↳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오만 간 호르무즈 해협 권리 및 수익 분배 합의 체결 발표 ↳ 이란은 미국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유럽 뉴스 20 건	• 유로존 주식 보험, 채권 수익률 소폭 상승 — 미국 인플레이와 호르무즈 협상의 혼합 신호 ↳ STOXX 600 보험 마감(은행주 선행, 헬스케어 약세) ↳ 미국 7월 인플레이션 3.7%로 기대치 수준 유지, 연준 9월 인상 기대 소폭 상향(유로존 10년물 수익률 +2bp) ↳ 유럽중앙은행(ECB) 9월 금리 인상을 준비하나 추가 인상 신호는 제한적(이란 전쟁발 유가 부작용 억제 목적) • 독일 정부 2027년 1% 성장 목표, R&D·투자 확대로 수출기대감 4년 최고 ↳ Friedrich Merz 총리, 친기업적 개혁과 정부 지출 확대로 2027년 1% 이상 성장 목표 제시 ↳ Lars Klingbeil 재무장관, 5000억 유로 규모 전시 특별예산 중 500억 유로를 1년 내 배정 완료 ↳ 2027년 R&D 투자 2026년 대비 60% 확대 추진 • 유럽 금융규제·통합·정치 다층화 ↳ 스위스 SNB Antoine Martin 부총재, UBS 자본 요건 강화 제안 지지(2023년 Credit Suisse 인수 후 은행 집중도 증가 배경) ↳ 건전한 자본 보유가 상업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점 강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이 풍부한 은행이 부실기관 인수 기회를 활용한 사례) ↳ 독일 Klingbeil 재무장관, UniCredit CEO Andrea Orcel 을 9월 14일 베를린 재무부 회담에 초청(첫 직접 접촉, Commerzbank 협상 재개 신호)
중국 뉴스 2 건	• 중국 근로자의 996 과로 불만, EU 강제노동 규제와 정책 기조 일치

권역	요약
	- 중국 근로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996 근무 문화(오전 9 시~밤 9 시, 주 6 일 근무)의 과로에 대한 불안 표출 - EU 의 강제노동·과도 근무 규제 기조가 중국 인터넷에서 호응 얻으며 무역협상의 여론적 기조로 기능 - EU-중국 무역수지 적자와 중국의 저임금·장시간 근무 기반 가격경쟁력 문제가 갈등 심화의 배경 • 중국 CNOOC, 상반기 순이익 사상 최고 기록 - 순이익 858 억 위안(\$129 억), 전년 동기 695 억 위안 대비 +23.4% 증가 - 유류·가스 매출 2,061 억 위안(+20%), 평균 실현유가 \$85.49/배럴(+23.6% 상승) - 이란 군사정세 악화로 인한 중동 유가 상승 및 생산량 증가 견인
멕시코 뉴스 21 건	• 멕시코중앙은행, 2026 년 성장 전망을 1.5%로 상향 조정 2 분기 경제활동이 예상을 웃돌면서 전망 상향 (이전 1.1%) 2027 년 성장률은 2.1%에서 2.0%로 소폭 하향 조정 • 멕시코중앙은행, 소비자물가 3% 달성을 2027 년 4 분기로 6 개월 연기 - 이전 전망은 2027 년 2 분기 수렴 예상 2026 년 4 분기 근원물가는 3.5%로 상향 조정 (이전 3.4%), 근원물가의 완고한 상승 지속 • 멕시코중앙은행 총재, 향후 기준금리는 물가 전망에 의존하는 데이터 의존형 정책 강조 - 현 기준금리 수준의 유지는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 명시 -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조정할 유연성 유지 • 멕시코 경제 약세와 USMCA 재검토 불확실성 속 리스크 엇갈림 — 성장은 하방, 물가는 상방 - 경제 약세 지속 속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연간 재검토 진행으로 거래협상 리스크 확대 - 물가 상방 리스크: 무역차질, 지정학 긴장, 기후 충격, 원가 압력, 폐소화 약세 등의 복합 영향
남미 기타 뉴스 3 건	• 콜롬비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2028 년 중반 3% 목표 수렴 예상 2027 년 말 인플레이션 4.3%로 상향 조정(기술팀 8 월 초 예측, 이전 3.7%) - 중앙은행장 Leonardo Villar, 모델 기반 중기 경로 제시
프론티어 뉴스 1 건	• 아이슬란드, EU 협상 재개 국민투표 8 월 29 일 예정 — 여론조사에서 51.3% 지지로 협소한 과반 - 여론조사(8 월 21~25, 1,019 명): 51.3%가 협상 재개 지지 — 이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 - 투표 대상은 EU 가입 찬반이 아니라 협상 재개 여부로 제한 — 실제 가입은 협상 타결 후 별도 국민투표 필요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